

8. 국고 및 증권

가. 국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국고금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시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거래를 정부 회계제도⁹⁶⁾에 맞추어 처리하고 정부와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금 수급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수납 및 지급 현황

국고금 수납업무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⁹⁷⁾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고대리점은 일반 납부자들이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정부의 운용 국고금, 국고채권발행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고 있다. 2019년 중 국고대리점 등을 통해 수납된 국고금은 444조 원이며 한국은행에 직접 수납된 국고금은 1,551조 원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고금 지급업무는 국고전산망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 지출관의 국고금 이체

요청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 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상환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부터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중 채권자 계좌를 통한 국고금 지급규모는 725조 원이며, 그 외 국고여유자금 운용 등 지급규모는 1,258조 원이다.

표 III - 26. 국고금 수납 및 지급

	(조 원)			
	2017	2018(A)	2019(B)	증감(B-A)
총수납				
국고대리점 등 수납	399	438	444	6
정부예금 수납 ¹⁾	1,240	1,391	1,551	159
총지급				
채권자 계좌 지급	607	667	725	58
정부예금 지급 ¹⁾	1,015	1,141	1,258	118

주: 1) 국고여유자금 회수 및 운용,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국고계정 간 대체 포함

자료: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현황

한국은행은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유형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한다.⁹⁸⁾ 2019년 말 국고대리점은 1만 7,163개로 111개 증가하였으며, 국고대리점을 통한 수납금액은 427조 원으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96) 우리나라는 정부 회계제도를 「국가재정법」에 의해 수입·지출을 현금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현금주의와 「국가회계법」에 의해 경제적 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로 정리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한국은행은 현금주의에 따른 계리만 수행하고 있다.

97) 2008년부터 국고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을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98) 국고수납대리점이란 은행 영업점, 국고금수납점이란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원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영업점을 말한다.

표 III - 27. 국고대리점 현황¹⁾ 및 수납금액

(개, 조 원)

		2018	2019	증감률
개수	수납대리점	6,894(22)	6,849(22)	-45(-)
	수납점	10,158 (6)	10,314 (6)	156(-)
	계	17,052(22)	17,163(22)	111(-)
수납 금액	수납대리점	405	410	4
	수납점	17	17	0
	계	423	427	4

주: 1) () 내는 대상기관 수
자료: 한국은행

국고전산망 운영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지급을 실시간 전자이체 처리하여 재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고금 수납, 국세 환급 등 대량의 자료는 지정된 시간에 일괄 처리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시 이메일 등 대체매체 혹은 재해복구센터⁹⁹⁾를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2019년 중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일평균 처리 규모는 411.8천 건, 18.3조 원으로 2018년 대비 각각 7.4%, 7.5% 증가하였다. 이는 국세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규모가 증가¹⁰⁰⁾하는 등 정부의 지출규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표 III - 28.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일평균)

(천 건, 조 원, %)

		2018	2019	증감률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43.9	44.8	2.2
	일괄 처리	339.5	367.0	8.1
	(국고금 수납)	304.3	315.6	3.7
	(국세 환급)	35.2	51.4	46.0
	계	383.4	411.8	7.4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15.0	16.2	8.4
	일괄 처리	2.1	2.1	1.0
	(국고금 수납)	1.8	1.8	1.4
	(국세 환급)	0.3	0.3	-1.2
	계	17.1	18.3	7.5

자료: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및 현황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한도는 40조 원으로 2018년과 동일하였다.

표 III - 29.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10억 원)

	2018(A)	2019(B)	증감(B-A)
통합계정	30,000	3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	8,000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	2,000	-
계	40,000	40,000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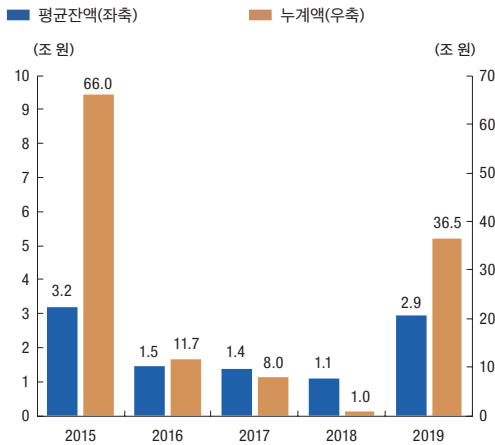
2019년 중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는 평잔 기준 2.9조 원으로 2018년 대비 1.8조 원 증가하였으며 누계액 기준으로도 1.0조 원에서 36.5조 원으로 35.5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지출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99) 주전산센터가 마비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를 위한 백업 전산시스템이다.

100) 2019년 중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건수 및 금액은 473만건, 5.0조 원으로 2018년(260만건, 1.8조 원) 대비 큰 폭 증가하였다.

세입·세출 간 시점의 불일치, 세입여건 변화 등으로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한 대출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그림 III- 23. 대정부 일시대출 평잔 및 누계액



자료: 한국은행

나. 증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위탁에 따라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의 발행·상환·등록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 중 국고채권¹⁰¹⁾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101.7조 원이 발행되고 57.2조 원이 상환되었다. 그 결과, 2019년 말 국고채권 발행잔액은 2018년 말 567.0조 원보다 44.5조 원 늘어난 611.5조 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장기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장기채권 발행이 늘어나면서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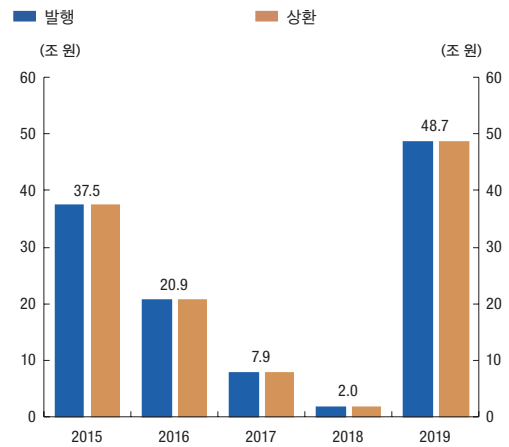
20년, 30년, 50년 만기 국고채권 발행잔액이 증가하였다. 재정증권¹⁰²⁾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 중 48.7조 원이 발행되었으며, 연내에 전액 만기 상환되었다.

표 III- 30.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2018년 말 잔액	2019년 중		2019년 말 잔액
		발행	상환	
국고채권	567.0	101.7	57.2	611.5
3년	47.2	20.6	20.4	47.4
5년	104.2	18.5	23.4	99.3
10년	204.5	26.1	13.0	217.6
20년	117.5	7.7	0.4	124.8
30년	90.2	25.6	0.0	115.8
50년	3.4	3.2	0.0	6.6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24.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¹⁰³⁾과 마찬가지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국내

101) 정부가 중장기 재정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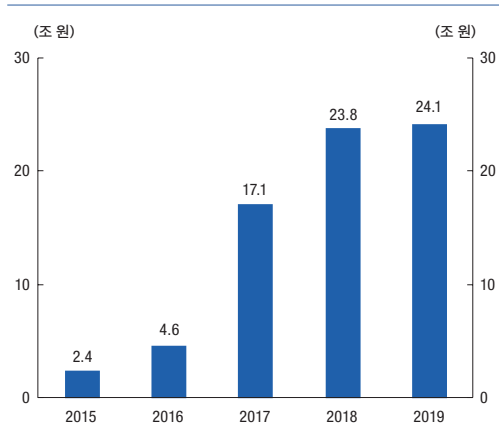
102) 정부가 회계연도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정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 국채이다.

103) 현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NY),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중국인민은행(PBOC), 호주 중앙은행(RBA), 프랑스 중앙은행(BDF), 독일 중앙은행(DBB), 캐나다 중앙은행(BOC),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등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5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와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투자 중인 24.1조 원 규모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보관 및 결제, 원리금 수령,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은행 간 협의¹⁰⁴⁾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¹⁰⁵⁾

그림 III- 25.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제공 규모
(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다. 자금관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운용·관리 업무¹⁰⁶⁾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은 국고채권 발

행, 예탁금의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중 178.4조 원을 조달하여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및 외국환평형기금 예탁 등으로 운용하였다. 용자계정은 용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0.6조 원을 조달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용자 등으로 운용하였다. 차관계정은 대외 원리금상환이 종료되어 전대차관 회수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연중 8.5조 원을 조달하여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표 III- 31. 한국은행 기금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

기금명	설치목적 및 주요 업무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p>정부의 여유자금을 통한 관리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계정: 국고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일반회계 예탁,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 • 용자계정: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 • 차관계정: 국제협력기구, 외국 정부·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관리
공적자금상환기금	<p>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2003년에 설치</p> <p>2003~2006년 중 부담한 총 49조 원의 채무를 2027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p>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p>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저축 장려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치</p> <p>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p>

자료: 한국은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중 정부 출연금 354억 원 및 한국은행 출연금 354억 원 등으로 708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¹⁰⁷⁾ 2019년 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전체

104)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05)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3>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6) 수입금의 징수, 지출금의 지급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말한다.

107) 저축만기 시 저축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은 연 0.9~1.5%(저소득 가입자는 연 3.0~4.8%) 수준이다.

가입자 수는 27.7만 가구이다.

표 III- 32. 기금 조달(운용) 현황

(10억 원)

	2018(A)	2019(B)	증감(B-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159,873	178,418	18,545
용자계정	656	602	-54
차관계정	221	100	-121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3	71	-12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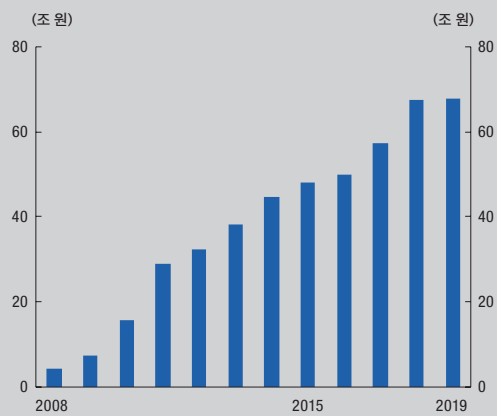
한편, 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RP, MMDA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참고 III-3.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산 다변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성 등으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한국채권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등 외국 공적기관의 국내채권 보유규모는 2008년 말 4.3조원에서 2019년 말 67.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III- 26. 외국 공적기관의 국내채권 보유 규모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외국 공적기관의 한국채권 투자가 해당국의 대외준비금 운용 등 공적인 성격을 갖는 데다 자금 유출입 정도가 낮아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15년부터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채권에 투자하는 외국 공적기관의 경우에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해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은 한국은행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은 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

기구 및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할 경우 이들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채권의 보호예수, 원리금 수령, 매매대금 및 증권 결제, 원천징수,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5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를 대상으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림 III- 27.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구조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는 투자 관련 리스크를 축소시켜 외국 공적기관의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시켜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한국은행은 다양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정례적인 국제회의를 통해 업무운영 경험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등 중앙은행 간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업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